

평생학습사회 구현

박운수

숙명여자대학교 교수

왜 평생학습사회인가?

기술진보



저출산 · 고령화



“

개인이 생애에 걸쳐 스스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
능동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하는 **평생학습사회** 구현

”

전제조건 : 충실한 정규교육과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노동시장

초 · 중등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?

초등 · 중학교의 역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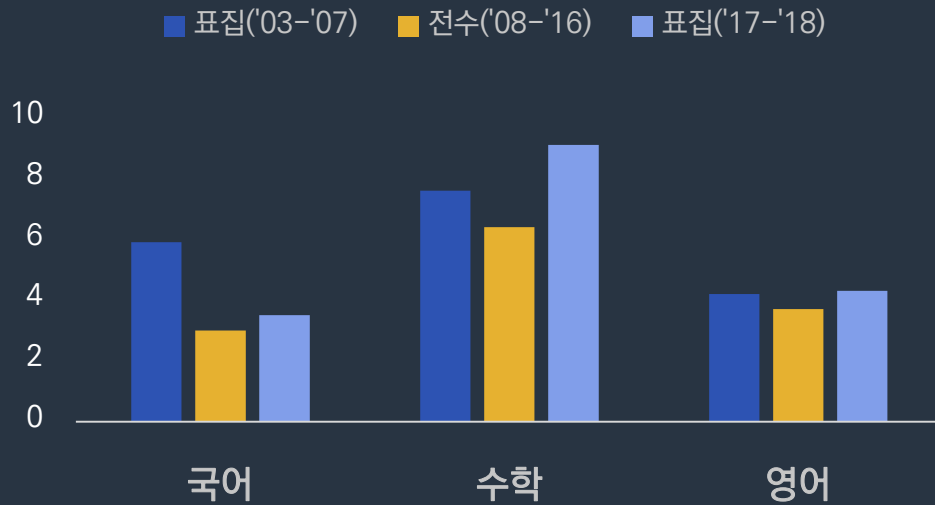
의무교육으로서의 책무성 강화

최소한의 기초역량(언어 · 수리능력 등)
갖추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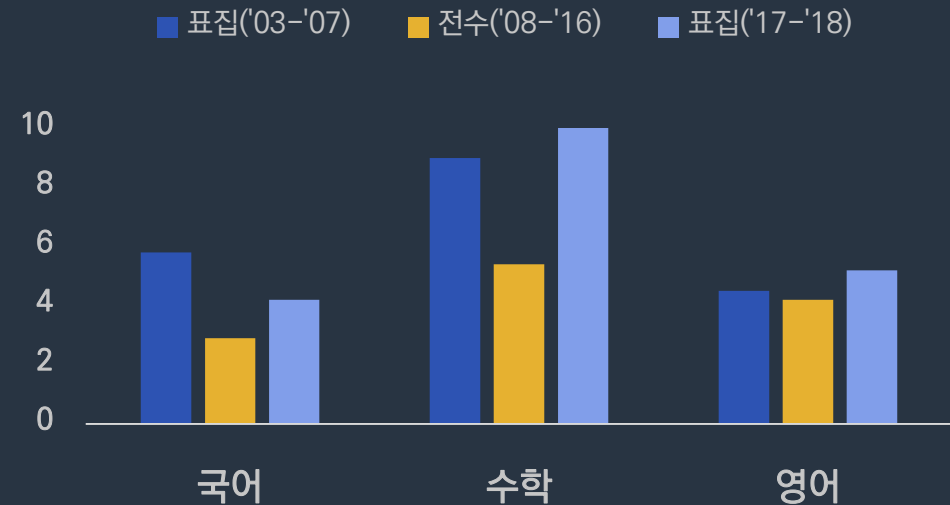
학생 개개인의 성취수준을 파악,
성취도 낮은 학생의 집중지원 · 관리체계 필요

평가방법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 비율(%) 비교

중학교



고등학교



자료:교육부 보도자료 (2019.3) “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“

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 시기(표집조사 대비) 기초학력 부진 학생 덜 발생함

고등학교 현황

인문계(vs. 실업계) 학생 비중



인문계 고등학교를 “일반고”로 지칭 → 보편 교육을 지향하는 중학교와 차별성?

지식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**지식을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**

적성과 관심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할 수 있어야 자기주도학습 가능

고등학교 지향점

학교 **간** 다양화

직접비용
(교육과정 개발 · 운영)
측면에서 유리



학교 **내** 다양화

간접비용
(입시경쟁)
측면에서 유리

학교 내 다양화를 위해서 **고등학교의 대형화**(예: 캠퍼스형 고등학교)와
교원 인사관리의 근본적 변화 필요

초·중등교육의 학제 개편

“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자 ”



노동시장 진출 1년 앞당길 수 있음



학업성취 저하될 수 있음

- ✓ 초등학교 입학 1개월 늦을수록 남성 임금 약 0.6% 증가*
- ✓ 모든 학년에서 월령 높을수록 성취도 높은 경향**

* Bedard, Kelly, and Elizabeth Dhuey (2012)

** Deming, David, and Susan Dynarski (2008)

주요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 수업시수(2019년 기준)

	총 수업연한(년)	총 수업시수(시간)	초등학교	중학교
한국	9	6,453	3,928	2,525
스웨덴	9	6,890	4,400	2,490
일본	9	7,301	4,621	2,680
독일	9	7,422	2,896	4,526
OECD 평균	9	7,590	4,568	3,022
노르웨이	10	7,894	5,272	2,622
프랑스	9	8,104	4,320	3,784
미국	9	8,883	5,824	3,059
호주	11	11,000	7,000	4,000

자료: OECD(2019)의 Figure D1.1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

한국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, 그러나 **수업시간은 짧은 편**

초·중등교육의 수업 혁신



기술로 대체 어려운
#창의성 #사회성 각광



상호작용 촉진하는 수업
→ 학생 사회성 강화

IT 기술을 교육에 접목한 **에듀테크(edutech)**는 **학교교육을**
개인 맞춤형으로 발전시킬 가능성

✓ 인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결과, 저성취 학생에게 특히 효과적

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은?

고등교육(대학교)의 현황

학령기 정규교육 → 성인기 비정규교육
역할 확대 필요



평생학습 고도화 위해
대학 역할 중요



유인이 있는가?

규제로 대학 간 경쟁유인 ↓
서울 소재 대학 과점 구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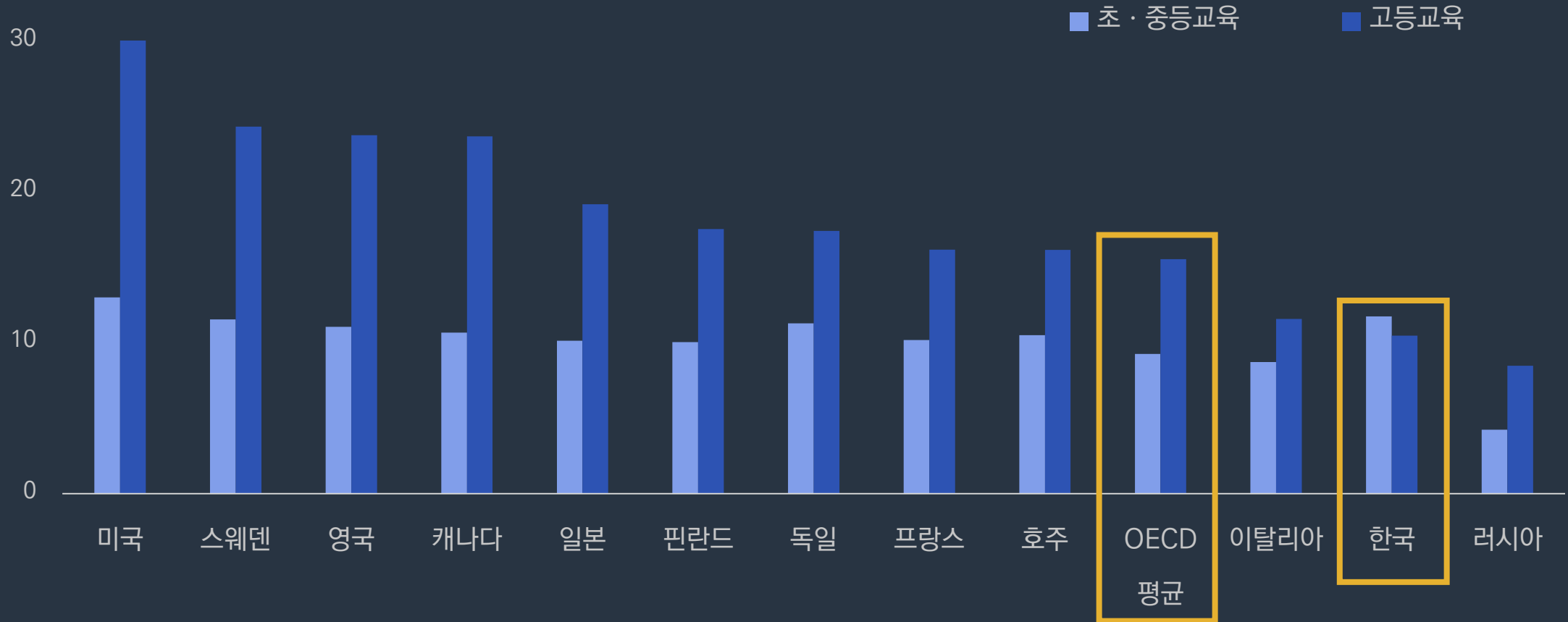
여력이 있는가?

대학생에게 투자되는 1인당 교육비
초등학생보다 낮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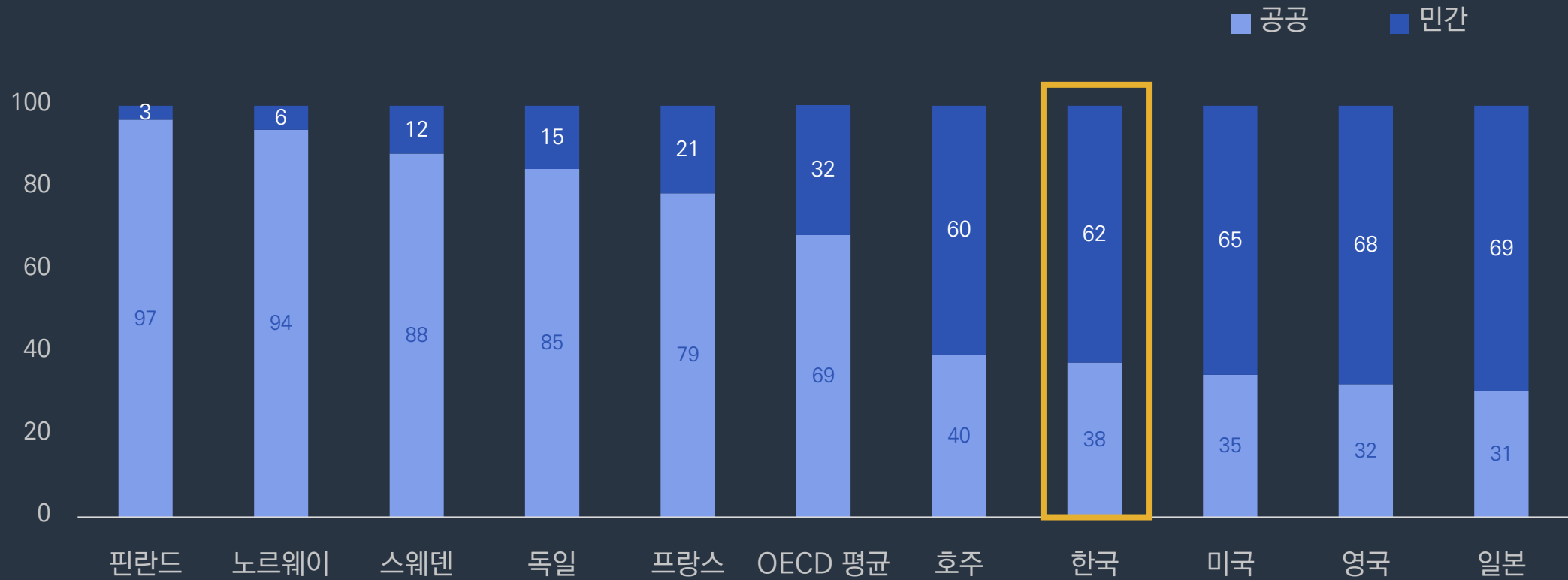


주요국의 학생 1인당 학교 교육비 지출: 초·중등교육 vs. 고등교육 (2016년 기준)

단위: 1,000 USD (구매력평가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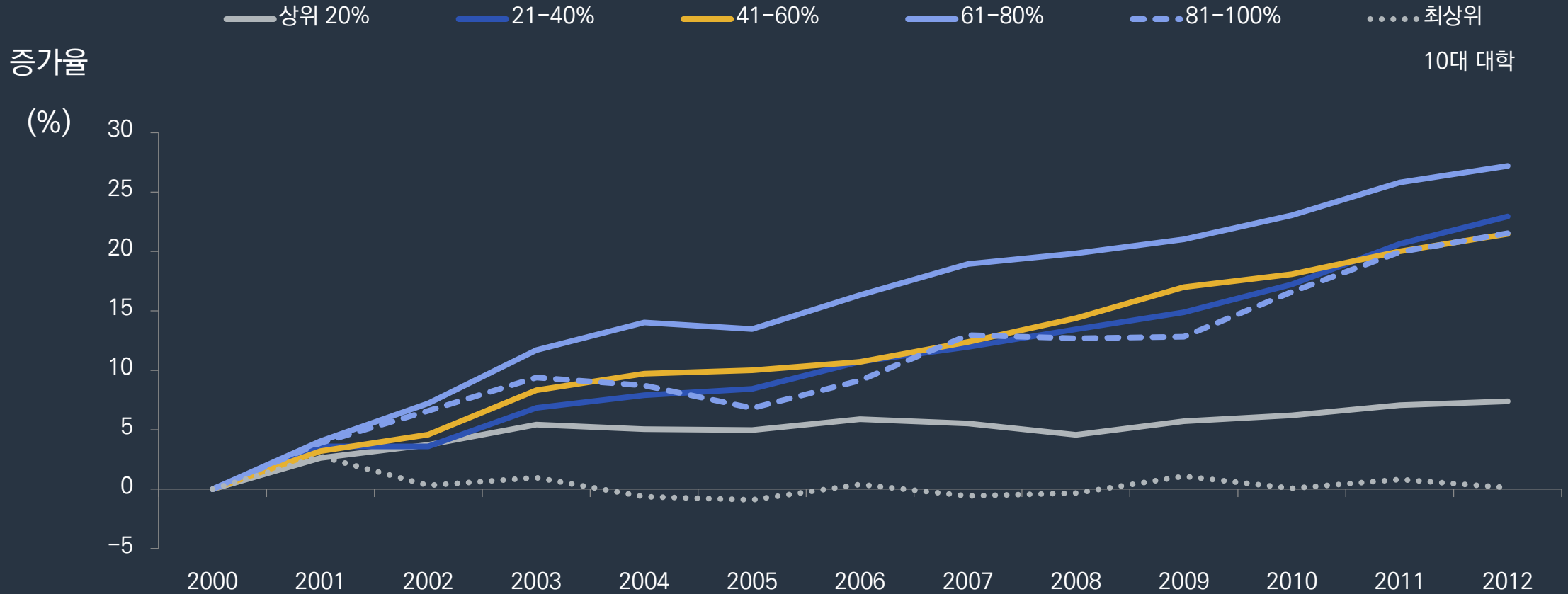


주요국의 대학교육 비용 주체별 부담 비중 (2016년 기준, %)



자료: OECD(2019)의 Figure C3.2를 재인용

신입생 수능성적 기준 대학별 정원 변화 추이



자료: 이주호 외(2014)의 <그림 1-19> 재인용

고등교육 정책 방향

“ 한국 대학 사립 비중(87%) ↑, 민간이 교육비 주로 부담 ⇒ **시장주도형의 틀**
정부가 시장의 가격(등록금)과 수량(정원)을 모두 규제하는 **모순된 구조** ”



시장경쟁으로 유도하려면?

가격 · 수량 규제를 완화하고,
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는데 주력

- 입지가 불리한 대학 지원 강화, 공정한 경쟁 촉진
- 기초학문 · 저소득 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강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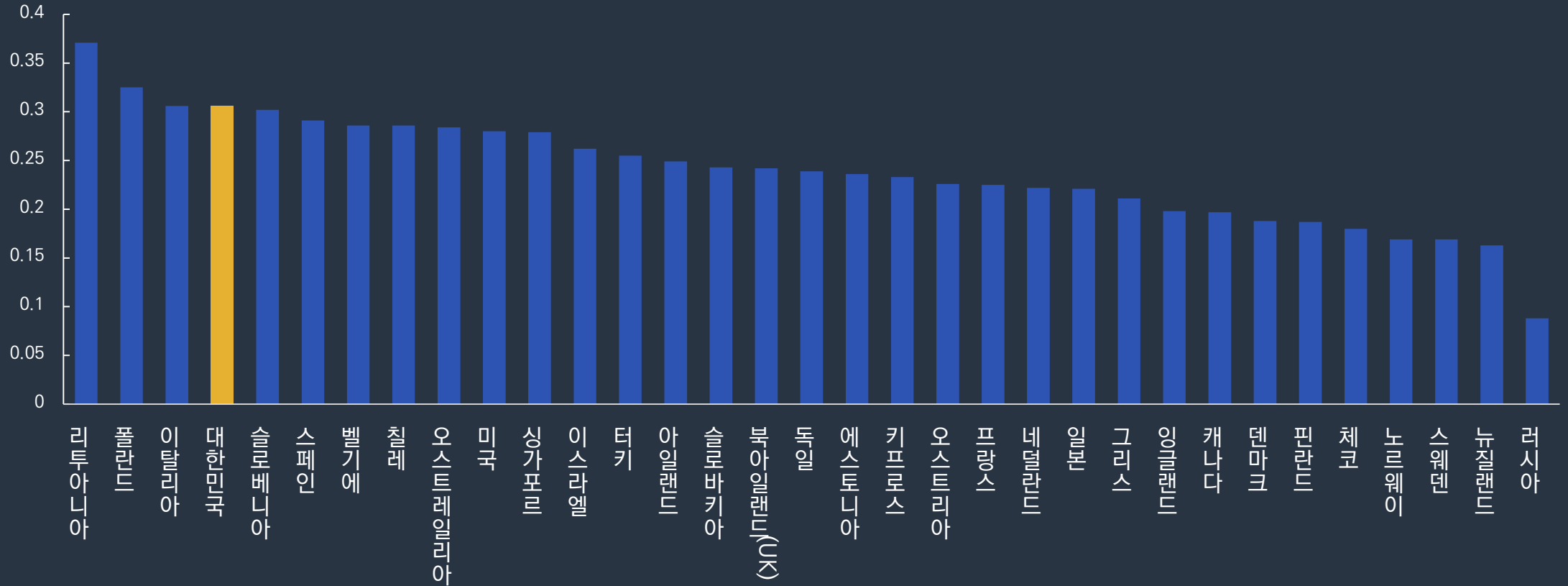
정부정책으로 유도하려면?

정부의 책임 있는 투자와
세밀한 관리가 필요

- 대학교육비 정부 부담률(38%)
EU 23개국 평균(77%) 수준으로 상향

평생학습사회에서의 성인기 교육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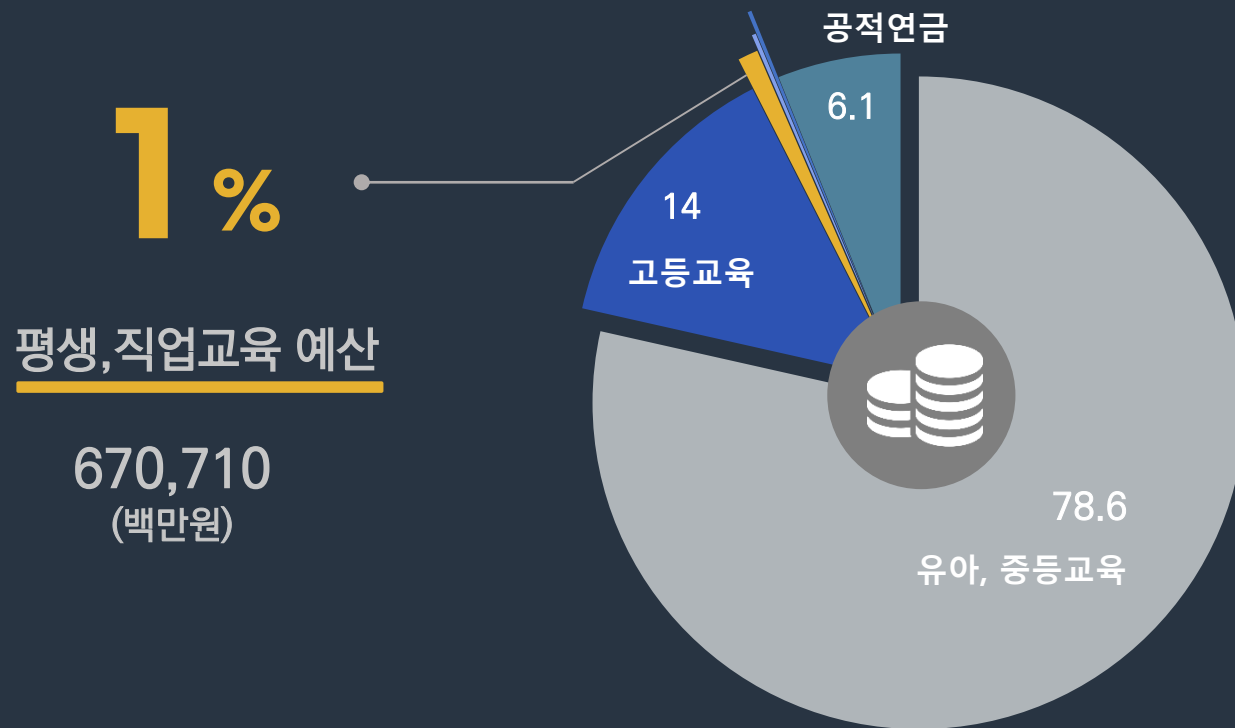
교육 수준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



- 1) 각 막대그래프의 높이는 평생학습 참여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용, 교육 수준(대졸 여부), 성별, 연령, 취업 여부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에서 교육 수준에 대한 OLS 추정치를 의미
- 2) 모든 추정치는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유의수준 10%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

자료: OECD<국제성인역량조사>, 제 1차 조사(2011~2015)

2018년 교육부 예산* 비중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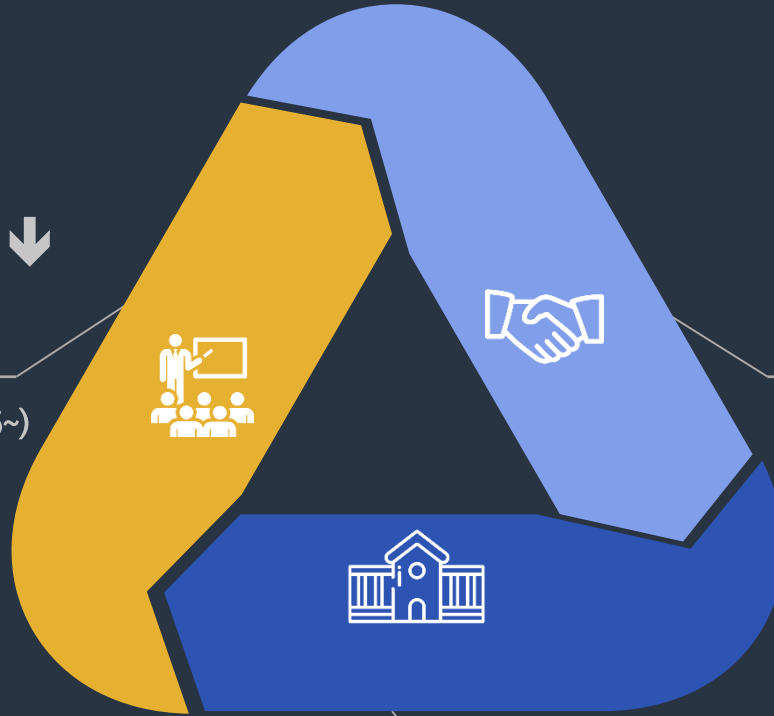
*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산한 수치를 의미

자료: 박윤수(2019)의 <표3-4>재인용

성인기 교육 · 훈련 위해서는...

저속련 노동자 학습 참여 ↓
추가 지원 필요

예: 프랑스 개인학습계좌(CPF) 정책(2015~)



교육당국과 노동당국의
협업 중요

예: 싱가포르 SkillsFuture 정책(2015~)

노동수요 반영한 교육 · 훈련 서비스
적기 공급위해 **민간시장 활성화** 필요